

건설기능공 의식구조의 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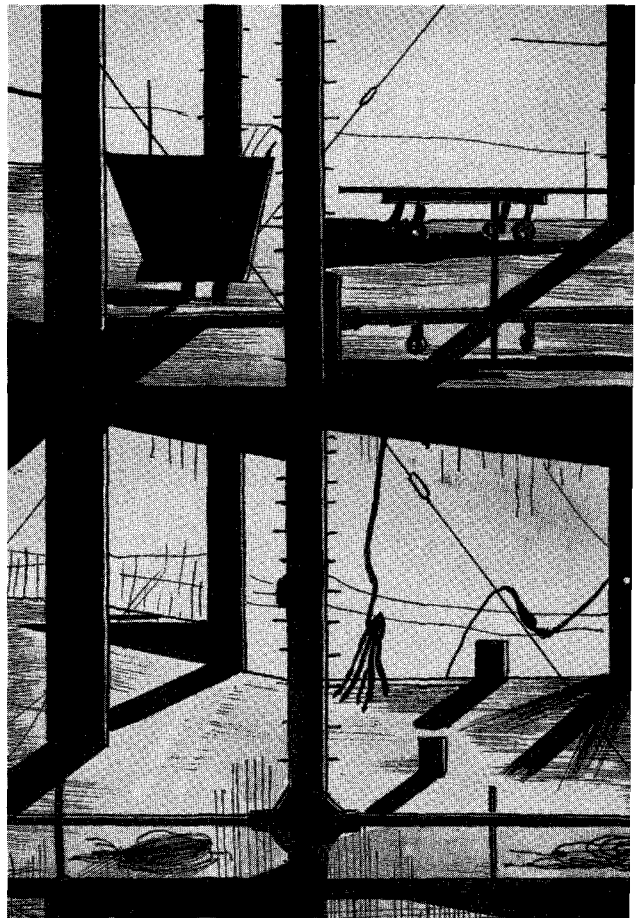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시공은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기능인의 손에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건설기능인들이 선조들의 장인정신을 계승하여 건설공사에 임함으로써 건설기능인들이 이제는 의식구조가 바뀌어 건설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기능공 의식구조의 실상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였다.

본 자료는 건설현장 기능공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하여 기능인들의 의식구조와 부실요인 및 건설시공을 위한 방안을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 개황

[1] 중층하도급에 의해 독립 십장제로 운용, 일용형태로 채용하는 등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대부분 일용으로 채용하는 실정이다.

[2] 일부 중장비 기사와 현장 경비원만이 상시고용형태로 채용되고, 전체의 70% 이상은 임시공용형태로 채용(독립 십장제인 통칭 「오



야지」에 의해 고용됨)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건설기능공의 상시고용율은 타산업에 비해 열세한 편이다.

이렇듯 상시 고용제도가 아니어서 퇴직금 제도나 의료보험 혜택 등도 없는 등 직업으로의 안정감을 잃어 건설기능공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3] 건설기능인력중 70%가 단순노무직으로 분포되어 있는 실정이다.

① 목공, 미장, 철근공 등 순수노임성 공사의 기능인력이 70% 점유한 실정이다.

② 철근공, 미장공, 비계공 등 단순노무직이 절대로 부족한 형편이다.



③ 몸으로 일당을 때우는 숙련도가 떨어진 기능공이 다수 현장에 상존하는 등 뜨내기 기능공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당을 올리기 위해 자주 현장을 옮겨 다니는 철새 기능공도 많은 실태이다.

④ 기능도 없이 일당이 높은 목수직으로 전환하는 등 직종을 번번히 옮겨 기능 숙련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⑤ 힘든 방수공이나 일당이 적은 철골공을 기피하는 바람에 기능공 부족이 상존하는 실정이다.

[4] 건설기능공 자격증도 실효가 적어 기피하는 경향이다.

훈련원 출신보다 어깨너머로 배운 시공능력이 인정하는 풍토에 기인, 현장에서 기능공 자격증 소지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농후하며, 고등학교 중퇴자의 경우에는 훈련원에서 기능공 자격을 취득해도 별로 쓸모가 없더라는 자책감도 정상적인 훈련원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기술이나 기능이 아닌 일 치우는 능력으로 일당을 매기는 풍토가 기술을 외면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 이런 이유로 기능공 양성 전문훈련기관을 기피해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어깨너머로 배워 기능숙련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5] 건설기능인력의 서울 집중으로 기능공이 편중되어 있다.

지방공사시 현지 기능공의 부족으로 인하여 타지 기능공을 채용할 경우 숙박비 등 경비의 지출이 많아져 일당이 올라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

[6] 건설기능공의 기피 이유

① 건설업종 3D 현상으로 젊은층이 기피하고 있어 현장인력이 갈수록 노령화 추세에 있다.

② 건설기능을 배우려는 사람이 갈수록 부족한데 건설기능공이 사회적으로 대접을 못받는 데서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일당은 많으나 일하는 날짜가 적어 생활의 불안정도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다수 건설기능공이 일년에 230일 이상 일한 사람이 드문 실정이며, 사실상 6개월 밖에 일을 못하고 있어 타산업분야의 종사자에 비해 일당은 높은 편이나 연수입으로 따져보면 상시근로자 고정급의 절반 수준이다.

③ 예를들어 미장공의 경우에 팔을 많이 써 관절염 등 직업병을 얻게 된다. 이렇듯 직업병도 건설기능공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

④ 공사현장의 잦은 이동 등 근로조건이 타업종에 비해 열악하고, 수주산업으로 일감 확보에

도 불안감을 느끼는 등의 공사현장 열악도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기능공의 노령화와 미숙련공의 고용 등으로 건설재해의 빈발도 건설기능공을 기피하는 원인이다.

■ 기능공의 의식구조

[1] 긍정적인 측면

전문업체의 경우 기능공 상시공용화하여 한식구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들 기능공은 대부분 높은 기능으로 자신이 시공에 참여한 공사의 질에 자신감을 갖는 편이다. 이런 기능공중에는 도면을 착실히 보고 마감까지 제대로 하자는 의식으로 작업에 임하는 등 보이지 않는 시공부문까지 성실시공으로 책임지자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성실시공의 혼을 담은 시공의식을 주체로 수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현장도 늘고 있는 추세이며, 「무기력과 무관심한 기능공을 스스로 추방하자」는 현장내 기능공 스스로의 자발적인 결의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부정적인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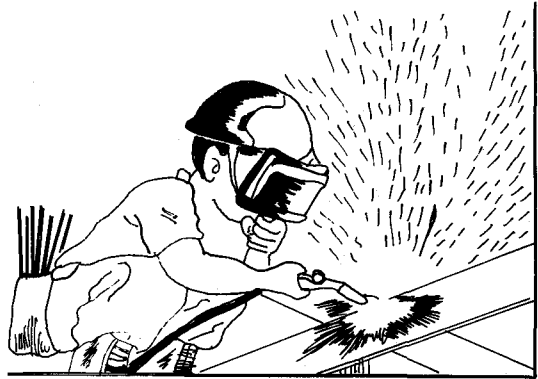
(1) 정신적인 자세의 해이가 가장 큰 문제

① 술을 마시고 작업에 임할 경우, 이를 기사나 감독이 지적하면 다음날부터 타현장으로 가버리는 등 작업에 임하는 정신 자세의 해이가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② 일이 서투르다고 핀잔을 주면 다음날부터 안 나오는 풍토가 만연해 기능공이 부족한 실정이다.

③ 일 시작 후에도 담배를 피우는 등의 개인적인 일로 실제작업은 30분후에 시작하며, 계속 마무리를 해야할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마감되기 30분전에 이미손을 씻고 퇴근을 준비하는 풍토가 만연되고 있어 건설시공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2) 건설기능공의 사명감 부족도 부실의 원



인

① 「시간을 때우는 일당쟁이」라는 소속감없는 생각과 「시간만 가면 일당을 받는다」는 등 사명감이 결여되어 혼이 깃든 장인정신을 찾아볼 수 없다.

② 힘든 부문에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충대충 처리하는 풍토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형편이며 「밥을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다」는 식의 「노가다」라는 자조적인 생각으로 공사에 임하는 의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③ 자신은 절대로 자식이나 아는 사람에게 건설기능을 배우라고 권유를 앓겠다는 부정적인 의식이 팽배한 실정이며, 돈이 적더라도 서비스업 등에서 사람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 현장을 떠나는 실정이다. 또한 노가다는 옷이 더럽고 불결해 「지하철만 타도 알아본다」는 자폐의식에 젖어 상대적으로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원인이 된다.

(3) 3D현상으로 돈을 많이 주어도 굶은 일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 세대가 건설현장을 기피

목수일당 8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는 등 한달 세금없이 3백만원을 받아도 불만족스러운 상태이며, 식사를 제공하고 때 찾아 참을 주는 등 하루 8시간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일을 한다면서 기피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고, 하루 20명중 평균 5명은 결근을 다반사로 하고

나의 손은 정밀시공 나의 눈은 품질관리

있다.

(4) 신분확인절차가 없고 하루 일당 받기로는 건설현장이 가장 손쉬워서 현장기능공중 막 일하는 기능공에는 인력시장을 통해 유입되는 전과자가 많아 당초 성실시공 의지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5) 전체적인 건설기능공의 태부족도 숙련도가 떨어진 기능공 양산의 원인

① 숙련도있는 기능공의 부족으로 미숙련공을 숙련공과 한조로 묶어서 일을 시키는데서도 시공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② 「아리끼리(돈네기)」의 경우 약속된 공사의 물량만 빨리 시간내에 해치우면 손을 털고 퇴근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선호, 작업공정을 서둘러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경우도 많다.

③ 현장청소 등 기능과 관계없는 일에 한해서만 「아리끼리」를 주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기능이 필요한 공종도 「아리끼리」를 주어 부실이 생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6) 현장경험이 적은 기사가 기능공의 시공을 일일히 확인하지 못하는데서도 부실이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며, 서둘러 일하는 「공기의 부족」도 가장 큰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① 공기에 쫓겨 야간작업을 할 경우 집중력이 떨어져 부실시공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다.

② 뒤따라오는 공종이 잡혀 있는데 기능공이 빠져나가니까 서둘러 마감하려고 졸속시공을 자초하면서 공기를 채근하는데서도 부실이 나오고 있다.

③ 당초의 도면 시방서대로 하지 않고 날일로 쫓기다가 설령 구조가 잘못되면 「깨고 싸발라 버리면 된다」는 식으로 완벽시공의 의지가 약하고 부실공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도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6) 현장기능공의 의식을 위한 교육과 기타 기능향상을 위한 교육비를 설계비에 반영하고 기능공의 숙련교육을 반복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능공을 위한 현장교육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7) 기초적인 도면의 미숙지로 작업에 임하는 것도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3] 개괄적인 부실사례

공기에 쫓길 경우 「오야지」 또는 「십장」이 공사를 부문별로 「아리끼리」로 공사를 주는 것도 부실의 원인이며, 기능공의 일당을 챙겨 줄려고 「데마」를 데려다가 시공하는 경우 품때기로 일을 맡기는데서 날림공사가 나오는 등 일반적으로 미숙련공의 부실보다는 숙련공이 공기에 쫓기어 고의로 부실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

[4] 장인정신

① 과거 : 선조들은 어떠한 건축물에도 정성과 혼을 불어넣어 「훌륭한 목수는 죽은 나무에 두 번에 생명을 준다」는 속담이 생겨날 정도로 장인정신을 중히 여겨 한국고유의 전통한옥 건축시공에 자부심이 대단했으나 현재의 기능공들은 자신의 기능에 대해 자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자귀나 끌과 톱 등 연장그릇도 소중히 여겨 함부로 베고 자는 일이 없고 머리맡에 모셔놓고 잠을 자는 등 어염집을 한 칸 지을 때도 문걸쇠·문빗장·돌쩌귀 하나 소홀함이 없이 장인정신으로 깎아 만년주택으로 세웠다.

② 현재 : 그나마 문화재나 한옥을 시공하는 도편수·목조각공·한식목공·한식와공들은 옛 장인정신이 다소 살아있어 성실시공을 하는 편이지만 나머지 기능공은 일당 개념으로 시공에 임해 장인정신이 희박한 실정이다.

③ 해외건설 우수시공원인 : 해외의 경우엔 일당급의 작업량 개념이 아닌 시간 개념의 시급제(時給制)로 품질을 우선하고 공기보다는 시

공질을 절대 우위로 치고 있기 때문에 성실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 시간 작업후 10분 휴식의 의무화로 작업능률을 올리고 있는 등 엄정한 작업시간의 준수도 성실시공의 분위기를 유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수자재의 사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한국건설인」이라는 자긍심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이전 부터 해외에 진출해 이국만리 열사의 나라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정글에서도 훌륭한 시공으로 평판을 얻어 이미 해외건설의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는 물론 국가경제 건설의 활력소를 불어넣는데 자기 자신이 크게 기여했다는 자부심으로 작업에 임하여 성실시공이 되고 있다.

[5] 배관공(급배수 및 냉난비설비 배관) 현황 및 부실요인

① 현황 : 배관공의 A급 기능공의 경우에는 숙식제공에 일당 5만원선 정도로 타기능공에 비해 대우가 열악하여 소속감 및 성실시공의 의지가 부족한 형편이다. 기능공 밑의 조공의 경우에도 일당 3만원이나 3만5천원선 밖에 안 되고 5년 정도면 숙련공으로 자부하는 실정이다. 또한 건축배관 기능사 2급보는 90% 이상이 어깨너머 배운 기능공들이다.

② 부실사례 : 재질이 좋은 강관 등 우수자재로 사용해야 부실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재불량의 사용으로 부실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자재의 검수에도 문제가 많다. 또한 콘크리트공이나 미장공과 시공하려고 맞부딪쳐 고의로 남의 작업에 구멍을 내어 부실이 되는 사례가 많은 등 한데 뭉쳐 건설시공한다는 공동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 대책

[1] 일을 처리하는 양으로 일당을 책정하려는 풍토 개선

기능공의 일당을 올려주겠다며 작업량을 독촉하는 것도 부실의 원인이 되므로 품질우수평가로 일당급을 책정하는 풍토로 개선되어야 건설시공이 보장될 것이다.

[2] 싼 노임으로 시공질 저하를 자초하는 형편도 시정되어야

스스로 기능이 없다고 싼 노임을 자처하여 스스로 조잡시공을 당연시하고 시공을 엉터리로 하면서 「일당이므로 어쩔 수 없다」라는 의식이 불식되어야 하며, 이의 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능인력확보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의식전환이 전제

해외공사처럼 국내공사에서도 「절대공기」라는 말부터 없애고 「적기공기 부여」만이 「성실시공 확보의 지름길」이라는 의식전환이 전제되어야 하며, 관공사의 경우 지체상금을 물리는 개념도 바뀌어져야 한다.

[4] 우수건자재의 확보도 급선무

공사비 부족으로 KS제품 대신 불량자재를 구입하는 것도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어 건설시공을 위해서는 우수건자재의 확보도 급선무이다.

[5] 기능인 우대정책의 홍보

일정급, 상시고용제, 의료보험혜택, 주택우선 분양권, 노후대책, 산재예방 등 각종혜택 및 장치가 부여되어야 건설기능공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는 전망이다.

[6] 사회인식 부족 개선

현장에서 땀을 흘려 일하는 대다수의 기능공의 밝은 면도 매스컴에서 취급하는 등 사기양양책이 필요하며, 사회가 기능공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바뀌어져야 한다. 이럴 경우 국민들이 보는 노가다 인식도 고쳐져 건설기능공을 비하하는 풍토가 개선될 경우 젊은 인력을 다시 건설현장에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